조경수에 발생되는 병해

-봄철 철쭉류에 발생되는 떡병과 민떡병-

4~5월경에 아름답게 꽃이 피는 진달래과의 철쭉류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경수이며, 산책이나 나들이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전해주는 화사로운 선물이다. 하지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는 철쭉류에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얀 떡이 붙어 있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철쭉류의 떡병(leaf-galls)과 민떡병(leaf blisters)이며, 이들 병해의 병징 및 방제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상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shlee4@forest.go.kr

■ 병징 및 표징

철쭉류에 자주 관찰되는 병해로는 어린잎, 꽃의 일부분이 하얗게 부풀어 올라 떡모양 같다고 지어진 떡병과 떡병균의 일종이지만 병징이 밋밋하다고 해서 지어진 민떡병이 있다. 떡병은 주로 5월경부터 어린잎, 꽃눈에 발생하며, 피해 받은 부위는 이상비대되어 미관상 좋지 않다. 병든 부분은 두껍게 부풀어 오르며, 구형 또는 부정형의 주머니 모양으로 잎의 일부 또는 전체가 기형으로 변형된다. 이 비대한 부분은 처음에는 녹색으로 광택이 있으나 점차 적색으로 변하고 흰색 가루(담자포자, 분생포자)로 뒤덮인다. 7월경 흰색의 포자가 다 날아가면 점차 흑색~암갈색으로 변하고 단단한 미이라 모양으로 남는다. 일반적으로 5월~6월경에 발생이 심하나 간혹 9~10월에 발생하기도 하며 강우량이 많거나 햇빛이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이 심하다.

잎, 꽃의 일부분이 하얗게 부풀어 떡모양을 나타내는 떡병

민떡병은 5월~6월 상순경 잎 앞면에 황색의 불규칙적인 둥근 병반이 나타나며, 병반 잎 뒷면에는 흰색의 병원균이 형성되어 있다. 잎에 보통 여러 개의 병반이 발생되며, 병반이 서로 붙어서 불규칙한 모양이 되기도 한다. 철쭉류에 발생되는 떡병과 민떡병은 피해가 심할 경우 나무가 지저분해져 미관상 좋지 않으며, 조경수와 정원수로 재배하는 경우 밀식재배로 인한 통풍과 채광이 좋지 않아 집단적으로 발생하므로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잎에 불규칙한 둥근 병반이 나타나고 뒷면에 흰색 포자가 형성되는 민떡병

■ 병원균

떡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Exobasidium japonicum*균이며, 민떡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는 *Exobasidium yoshinagai, E. dubium* 등이 보고되어 있다. 병원균은 담자균에 속하며, 잎 앞면과 뒷면에 형성된 흰색 가루는 담자포자와 분생포자(담자포자에서 발아하여 나온 포자)이다. 병원균은 주로 균사의 형태로 병든 부분에서 월동하여 이듬해 바람이나 비에 의해 전염된다. 떡병의 병든 부위는 사람이나 가축에 독성을 가지므로 식용하거나 가축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녹병과 같이 집단적으로 대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나 국소적으로는 다발하는 사례가 있다.

■ 방제방법

병든 잎은 절취하여 모아서 소각하거나 묻어버리고, 피해가 심하게 발생된 곳에서는 발병초기 동수화제, 만코지 수화제를 10일 간격으로 3~4회 살포한다. 재배환경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관리와 통풍이 잘 되도록 하며, 관리를 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